



제목	Hafiz and the Religion of Love in Classical Persian Poetr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 B. Tauris
발행일	2015. 5. 30.
저자	Leonard Lewisohn(편집자)
출판국가	영국 · 미국
페이지수	360
ISBN 또는 ISSN	978-1784532123

**내용 요약**

하피즈 시의 신비주의적인 낭만성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낭만주의적 서정성은 전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 루이손(L. Lewisohn)을 비롯한 이란 전공 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잘 형식의 하피즈 시는 시적 기교면에서 특별히 뛰어난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고전 시가 노래한 사랑의 철학과 상징성을 풍부하게 함축하고 있다. 하피즈가 자신의 시에서 노래한 세속적인 연인과 신에 대한 사랑을 종교로 승화한 것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한 혁신적이고 전문적인 저서로 평가받고 있는 이 책은 고전적인 페르시아어로 묘사된 페르시아 고유의 미학과 신비로운 철학에 대해 논한 것으로서 번역의 수준 또한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양 문학에서 하피즈의 낭만적인 시적 표현은 한편으로는 아랍문학과 페르시아 문학을 아우르는 이슬람 문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수용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랍과 분명히 구분되는 페르시아 문학의 고유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책에서 이란과 서구의 이란 문학, 철학, 사상 전공자 또는 전문가들은 하피즈의 사랑 시가 중세 페르시아 사랑 시를 탄생시킨 문명적 내지 문화적 배경을 연구하고 '사랑의 종교' 관련 계보를 총망라하고 총정리하기 때문에 중동, 중세 이슬람 문학, 이란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갖는다.